

생명을 채우는 아이들

광야프로그램의 캠프장에 도착한 45 명의 학생들과 8 명의 선생님들은 7 팀으로 나누어져 각팀의 텐트를 치느라 분주했다. 텐트를 쳐보지 않았던 아이들이라 팀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세워지기가 힘들기에 처음 텐트를 치는것부터가 훈련이 되는 그런 시간이다. 무척이나 더웠던 날이었고 튼튼한 텐트를 세우는것이 만만치 않았지만 7 개의 다른 팀들이 선의의 경쟁속에 텐트를 치고 카누피텐트와 선생님들의 텐트 이렇게 대형텐트가 12 개가 세워진 캠프사이트는 산과 물과 어우러 장관을 이루고 있기에 아이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들을 다시한번 추스르고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아이들과 그릴햄버거로 즐겁게 함께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을 마친 우리는 다음날 아침 일찍떠나야 하는 봉사프로램 스케줄을 짜야했다. Rescue Mission 의 홈레스쉘터로, Fishkill 교도소로, Long Life Senior Center 의 노인분들을 위한 봉사로 St. Mary 어린이 청소년 병원과 헤비타트 휴메니티 불우이웃 집지어주는곳으로 금요일까지 이렇게 20 명 10 명 15 명씩으로 팀이 나누어져 적어도 한번씩 이상은 다섯가지의 다른프로그램을 다 참여할수있도록 매일 저녁 프로그램을 짜야했다. 이렇게 일주일간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첫날은 조금은 서로가 어색해서 그룹그룹으로나 지내던 아이들, 그리고 셀폰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여기 호텔이 아니야, 나 어떻게” 하며 울쌍까지도 짓던 그런 아이들,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을 정도로 자기표현에 서툴고 수줍은 아이들, 그리고 늘학교에서 우수한생들로 늘 인정받고 칭찬만 받아 공주와 왕자같은 아이들이 어느새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면서 자신과 남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기 시작하며, 어색해하고 수줍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다가가 말을 걸며 친구를 해주며 그렇게 소리없이 어울어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은 세상의 다른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이였다. 그리고 비까지 오락가락하는 변덕스러운 날씨로 텐트가 젖고 생활이 불편해진 순간순간들까지도 그들은 온몸으로 비를 받으며 달빛을 배경으로 하늘을 향해 빙빙돌며 춤도 추며 그렇게 아름답게 적응하며

즐기는 모습들은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시간들이었다. 새벽 6 시에 일어나 몸이 흠뻑 땀으로 젖을 정도로 집짓는 봉사로 힘든시간이었음에도, 홈레스쉘터에 가서 3,800 의 양말을 접어 정리하느라 허리와 다리 팔이 피곤해 돌아왔음에도 , 교도소에서 무섭기도,그리고 재소자들에 대한 안스러움과 아픈마음, 그들의 아픔으로 토해내는 삶의 체험간증의 감동으로 가슴이 찡함으로돌아왔음에도 , 노인들을 위해 영어공부와 , 게임과 통역과 그리고 자신들의 탈렌트로 그분들앞에서 춤과 노래, 익살, 악기 연주등으로 하루종일 봉사의 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7 시이후에 돌아온 캠프촌의 짧은 휴식시간을 최대한 으로 활용하며 즐기기 시작한다. 분주하지만 봉사로 보람있는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흐뭇한 마음들은 따스하게 달구어져 서로에게 또다른 우정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것이다. 풋볼과 여러종류의 게임과 스포츠 그리고 시간시간 짬을 내어 써야하는 저널등으로 아이들은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이들의 눈에서는 총명한 빛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입가에는 어느때도 볼수없던 환희와 만족의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아이들의 가슴과 영혼속에 아름다운것으로 느껴지고 채워지는 하루하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선생님들과 나는 어느새 피로가 견혀지고 생명으로 채워지는 우리자신을 느낀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는 그다음날의 팀들을 나누고 계획하며 그리고 오늘 만난 사람들과 일들을 통해 내가 배우고 깨닫고 체험한것들을 서로 발표하며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반영해나갈수있도록 자신에게 확신시키는 시간들로 지낸다. 그리고 마지막밤 캠프화이어 시간은 절정의 시간으로 자신들이 배우고 체험한것들을 연극으로 발표하는 시간과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것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참가한 모든 학생들은 열광하며 행복해하는 시간이 된다. 캠프를 떠나는 시간을 아쉬어하며 붙잡으려는 듯이 산속을 가르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진다 .그다음 새벽 텐트를 접고 텐트를 떠나는 준비를 하면서도 담소와 배구, 풋볼, 후리즈비등으로 끝가지 시간가는 줄 모르게 즐겁다. 아이들은 웃으며 하루 더있으면 안되냐며 내게 매달리는 응석으로 나와 선생님들을 기쁘고 보람있게 만들어 주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집에 도착한

아이들은 떠날때 시큰둥했던 (처음 참가한 학생들중 더러는)모습과는 달리 엄마, 나 내년엔 또가면 안되요라며 캠프의 즐거움과 보람을 단적으로 표현해 부모님들이 제게 전화를 해 “아이가 께째째 하고 물건들이 엉망인것을 보니 고생을 꽤 한것같은데 아이가 꼭 그 캠프를 다시보내달라니 뭐가그렇게 좋았어요” 이구동성으로 물으신다. 그리고는 아이들은 엄마아빠에게 엄마 아빠 제게 해주신일중 제일 멋진 일을 해주셨어요 하며 꾸벅 절까지 하는 아이들이 있어 부모님들은 제게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들을 하신다.일주일후 수료식겸 피크닉으로 모인 아이들은 8시간이 지나도자리를 뜨려 하지 않고 그아이들의 즐거운 모습에 부모님들이 기쁨으로 해오신 갈비, 불고기등 쌓여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 치우느라 우리는 즐겁게 분주했다.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보람과 가치 그리고 즐거움을 갖게 한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자기매김을 하게 해주신 한국일보에게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린다.